

'글로벌시대, 국제기구서 근무해 보자'

도-외교부,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서 국제기구진출 설명회... 국제진출프로그램 소개·모의 면접 등 진행

전북도는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2022 제15회 국제기구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엔사무국(UN) 등 7개 국제기구와 전라북도 포함 전국 각지에서 20여명의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등이 참석했다.

국제기구 본부에서 실제 인사 및 채용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한 이날 행사는 국제기구 진출의 꿈을 꾸고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등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1부에서는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소개와 국제기구 인사담당관 소개, 2부에서는 7개 국제기구를 3그룹으로 나누어 각 참가기구를 인사 채용관련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 등 그룹별 100분씩 심층세션 진행, 3부에서는 특별세션으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제기구별 모의면접을

실시했다.

2022 제15회 국제기구진출설명회는 서울·인천, 전북에서 개최되며, 국제기구 취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도내 청소년, 청년들에게 인사채용 담당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국제기구 설명과 채용에 필요한 인제상, 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기구 진출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는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업 확대를 위해 1:1 상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

전북도 김유철 국제관계대사는 "젊은 감각과 적극적인 사고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청년들이 국제기구 진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으로 LPG 보급

국비 8억 원 확보... 117가구에 LPG 공급설비 보급

무주·장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기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주인 지원사업'에 무주군과 장수군이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위해 친환경 연료(LPG)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상수원관리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수준으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내년까지 설계 및 공정별 사업 추진을 통해 무주군과 장수군 117가구에 친환경연료(LPG)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수집개선 및 규제 주민 삶의 질 향상, 가스연료 사용으로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강해원 도 환경복지국장은 "친환경 연료(LPG) 보급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각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관리 지역에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도, 민선8기 첫 명예도민증 수여

조세호 농진청장·강성배 위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4일 전북도청 집견실에서 조세호 농촌진흥청장장과 강성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첫수여식으로 전북발전에 앞으로 힘을 써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세호 청장은 올해 5월 취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등 농업기술 혁신 및 농생명산업 육성 기반구축에 기여했다.

강성배 상임위원은 올해 1월 취임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양대 선거를 공정하게 추진하여 공직선거문화 확립 및 민주정치 발전에 노력한 공

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두 분의 힘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달라"라고 수여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96년부터 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 29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명예도민과 함께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전라북도 동행의원 19명도 오는 28일 명예도민증을 받을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조세호 농진청장과 강성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민선8기 첫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배 도선관위 상임위원, 김관영 지사, 조세호 농진청장) <사진=전북도청 제공>

여성생활체육대회, 22일 순창서 개최

2022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가 순창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가 오는 22일 순창공설운동장 일원에서 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도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정상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배구와 줄다리기, 피구, 신약 체조, 단체줄넘기, 고리잡기, 투호 등 총 8개 종목이 진행되며, 도내 14개 시·군을 대표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참가자격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이다.

한편 개최식은 대회 당일 오전 9시 순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시상식은 각종특별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수상작 발표

- 사용승인 공공부문 대상... 전주 천년 한지관 - 울그룹 건축사사무소 김희순 건축사
- 사용승인 일반부문 대상... 펼쳐진 풍경집 - 리슈 건축사사무소 홍만식 건축사
- 학생부문 전체 대상... 유무상생(有無相生) - 전북대학교 송재운·신수경·육송강
- 건축 드로잉·사진부문 금상... 화암사 - 정운석 작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사)전라북도건축문화제진흥협회는 제2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11월 2일~6일)를 앞두고 제2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수상작을 각각 발표했다.

지난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5일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접수한 결과 81점 작품이 출품됐다.

12일 대학교수, 건축사, 사진작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영예의 수상작 42점을 선정했다.

사용승인부문(공공분야) 대상에는 과거 한지마을이라 불리던 흑실골의 지

역적 특성에 전통건축의 개념인 누마루와 누하진입을 적용한 (주)울그룹 건축사사무소 김희순 건축사가 설계한 '전주 천년 한지관'이 선정됐다.

사용승인부문(일반분야) 대상에는 삶과 풍경을 담은 마당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변환경과 3대의 가족의 관계를 담아낸 (주)리슈 건축사사무소 홍만식 건축사사 설계한 '펼쳐진 풍경집', 주거분야 금상에는 거주자의 편리함과 더불어 주변 자연환경에 대응한 형태와 외장재를 적용한 일상 건축사사무소 최정인 건축사가 설계한 '소스다', 비주거분야 금상에는 종교

적 개념을 상징적인 형태와 재료의 물성으로 풀어낸 전주대학교 김준영 교수와 건축사사무소 예일 최형두 건축사가 설계한 '숲속 초막 셋'이 선정됐다.

학생부문 대상에는 비용과 체용을 공간적으로 인면적으로 표현해 지역 사회 활성화를 계획한 전북대학교 송재운, 신수경, 육송강 학생이 출품한 '유무상생(有無相生)', 건축 드로잉·사진부문 금상에는 국보 화암사 극락전과 주변 건물들로 둘러쌓인 중정 공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정운석 작가의 '화암사'가 선정됐다. /김경수 기자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북대학교 유기표 교수는 "분야별로 접수한 작품들에 대하여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 아름다운 건축물 확산, 미래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문화제는 '건축으로 보는 미래! 미래를 여는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수상작, 어린이 집 그리기 수상작,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한옥 기획전, 서울시 건축문화제 특별교류전, 공공건축 특별전, 건축드로잉 작품전과 새만금 건축물과 개발과정을 담은 특별전이 열릴 계획이다.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위촉했던 건축시장이 활기를 찾기를 바라며, 새만금 수변도시와 녹색건축물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축문화제를 지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교육청 조직개편, 일방적·불도저식'

전교조 전북지부 논평 발표

전북교육청이 기존 2국 13과 52담당에서 3국 17과 64담당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에 따른 논평을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3국 17과 64담당으로의 조직개편안은 교사와 교원노조 및 교육단체들과의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불도저식으로 만들어 발표한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각종 정책과 공문이 돼 일선 학교로 내려가고 이를 교사들이 수행해 완성한다"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잘 듣고 개선점을 도출해 제도를 개혁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조직개편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거쳐야 하는 절

차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무런 홍보가 없다.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으니 살펴보고 의견을 제출하세요 라고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거나 안내 쪽지를 보내거나 하지도 않았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교사들이 알 길이 없다. 그저 법적 요식행위로만 하고 있는 셈이라는 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예산 및 학교회계는 행정국의 핵심 업무인데 신설 정책으로, 학교급식·영양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책 학교 안전과에 각각 배치했다.

이에 전북지부는 "공약을 보면 전북교육청은 본청 인력을 줄이는 한편, 학교업무 지원·이관을 위해 각 지역 지원청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데,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5급 이상 간부들만 17명이 늘어난다"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민주성과 합리성을 갖추려면 전교조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센터장 박광진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